

정부기관소식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26개 중점 논의과제 선정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제1차 전체회의 이후 6개 분과위원회별로 1~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농식품분야 국정과제 등과 연계하여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6개를 선정하고 6월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킹 대표,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① 행복농촌 분과위원회(위원장: 최수명 전남대학교 교수)는 7개 중점 논의과제(농촌 삶의 질 향상 방안, 6차 산업화 등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산림을 활용한 국민 복지 확충 방안, 마을 단위 정주여건 개선방안, 농촌 활력 창출 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밀착형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방안, 농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경영체 활성화 방안)를 선정하고, 과제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3개 소위원회(정주여건 개선, 맞춤형 복지, 삶의 질 향상)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② 희망농업 분과위원회(위원장: 서종석 전남대학교 교수)는 3개 중점 논의과제(농업인력 수급 방안, 경영체별 경쟁력 제고 방안, 안정적 식량공급 방안)를 선정하고, 과제별 심도 있는 논의와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3개 소위원회(인력, 경영체, 식량 공급)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③ 신뢰받는 식품소비자 분과위원회(위원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5개 중점 논의과제(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방안, 식품산업 진흥 방안, 외식산업 발전과 한식세계화 추진방안, 고품질 안전 농산물 공급 및 소비자 정책, 농식품 분야 식품 영양 및 식생활 추진 방안)를 선정하였으며, 3개 소위원회(식품정책, 한식외식, 소비정책)를 구성하여 해당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④ 국민사랑축산 분과위원회(위원장: 박종수 충남대학교 교수)는 4개 중점 논의과제(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확립 방안, 축산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조사료 생산 확대 등 사료비 절감 방안,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한 가축질병 근절 방안)를 선정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⑤ 스마트농정 분과위원회(위원장: 송하성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원장)는 3개의 소위원회(행정효율화, 소통협력, 지방농정활성화)를 구성하여 중점과제(통계정보화재정사업 성과평가 등 행정 효율화 방안,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정부내 협력 증진 등 소통협력 강화방안,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⑥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성진근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는 4개 중점 논의과제(농산물 직거래 확대 방안, 도매시장 운용 효율화 방안, 농협 농산물 유통계열화 방안,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화 방안)를 선정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농업인 및 일반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제관련 기존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국민과 농업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점검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또는 소위원회) 회의 중 1~2회 정도는 현장에서 진행한다.

농식품 관계자 및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국민공감농정위원회의 모든 논의 일정내용결과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 홈페이지(www.mafra.go.kr/people/)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아울러, 26개 중점 논의과제가 마무리 되는 6월말 이후에는 농업계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농정이슈에 대한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처협업 및 창조경제를 위한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창의적 협업 활성화 등 국정 주요과제 추진방안 협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간부급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창의적 협업'이라는 국정기조에 부응하고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정과제 조기성과 도출이라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월 11일에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합동으로 '1일 기관장 교환 근무'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소통체계 강화 등 '국민이 행복한 청정국가' 건설을 위한 부처간 협업

활성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번 행사 또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적 협업'이라는 '국정철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리인 만큼, 현안과제 추진을 위해 협의해야 할 부처간 다양한 세부 정책들을 철저히 협의, 향후 정책 수립 및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부처간 협업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된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특강과 혁신적인 정책 발굴 등 검역본부의 역할과 미래비전 등에 대한 분임별 토론 및 발표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두 기관의 부처간 구조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잠재적 공통 이슈화 과제들까지 면밀하게 파악해, 국민이 중심이 된 창조적 협업으로 국정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안전 먹거리 관리를 위한 '창의적 협업'주요 과제

'창의적 협업'주요 토론 내용

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관리체계 구축

◆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로 위임된 도축·집유장 위생관리 업무에 대해 양 기관간 협업 강화

- 식품사고 발생원인 조사 및 위해정보 공유 등
- HACCP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

② 통합 식품 안전 정보망 구축

◆ 안전한 축산 식품의 대국민 제공을 위한 부처간 공동대응 세부 방안

- 수입 축산물의 위생 평가 및 해외 작업장 승인
- 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등

③ 전산시스템 공동사용

◆ 업무 이관에 따라 신규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시스템 구축 시 까지 공동으로 사용

» 정부기관소식

- 관련시스템 : 검역검사정보시스템(KAQIS),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LPSMS)

◆ 통계자료 관리 및 홈페이지 연동 등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창조농업 선도기술로 발명유공 표창 수상

발명의 날, 봉독화장품 · 메디라이스 등
개발 공로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제48회 발명의 날’기념식에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창조농업 선도기술을 개발한 한상미 박사와 한상익 박사가 발명유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들의 시상을 통해 발명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이 행사에서 봉독화장품을 개발한 한상미 박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메디라이스를 개발한 한상익 박사는 특허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한상미 박사는 2005년 국내 최초로 벌을 죽이지 않고 봉독만을 채취할 수 있는 봉독채집장치와 2007년 순수 봉독만을 정제할 수 있는 봉독정제법을 개발했고 이어 2010년에는 정제봉독을 이용한 봉독화장품을 개발했으며, 지난해에는 국내 양봉산물 최초로 정제봉독을 상품화해 화장품 원료로 유럽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익 박사는 2009년 폴리코사놀 등 기능성 성분 함량이 우수한 새싹보리와 2010년 생활습관병 예방 효과가 있

는 건강기능성 쌀인 메디라이스(눈큰흑찰)를 만들었다. 또한 2011년에는 벼 부산물을 이용해 100% 분해되는 친환경 바이오 필름을 개발했다.

‘제48회 발명의 날’기념식은 특허청 주최로 5월 15일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 국립축산과학원

일손 돕고 축산기술지원하며 사랑을 키워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직원들,
보춘마을에서 구름밭 흘러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 16일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인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보춘마을에서 농번기 일손을 돕고 축산농가에 대해 현장기술지원을 했다. 이 날 국립축산과학원 직원 60명은 고추밭, 양파밭, 조사료포 등에서 농번기를 맞아 바쁜 일손을 돕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을과 저수지 주변 환경정화에도 동참하였다. 보춘마을 축산선진화를 위해 실시하는 현장기술지원은 축사와 마을주변 소독과 함께 한우와 젓소의 번식능력 향상, 개량, 비육 사양 관리 등으로 분야별로 농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 지도를 실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09년 9월 25일 보춘마을과 자매결연을 한 이후 지금까지 해마다 현장중심의 일손돕기 행사와 축산기술지원으로 농촌사랑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농산물 25종, 코덱스 국제 식품분류에 등재

비름나물 등 우리나라 재배 농산물 25종,
국제식품분류에 새롭게 등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45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5.6~11, 중국 베이징)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비름나물 등 우리나라 재배 농산물 25종이 국제식품분류에 새롭게 등재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식품분류 등재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시 CODEX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해당 농산물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농식품부 등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 주요 성과는 국제 식품분류에 국내산 농산물 25종 등재, 인삼농축액 기준 신설 등이다.

엽채류 13종(비름나물, 고춧잎, 아욱잎, 콩잎, 파드득나물, 썸바귀, 등글레잎, 고들빼기, 원추리 어린잎, 보리순, 엇갈이배추(쌈배추), 고추냉이잎, 호박잎), 엽경채류 6종(고구마줄기, 토란줄기, 독활, 두릅, 음나무순, 미나리) 및 근채류 6종(쪄, 더덕, 도라지, 참마, 천마, 올방개) 등 총 25종의 국내 재배 농산물이 국제 식품분류에 등재되었다. 특히, 이 중 비름나물, 두릅 등 14종 채소류의 경우 국내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 국내 명칭 사용 14종 :

비름나물(Bireumnamul), 썸바귀(Sseumbagwi), 고들빼기(Godeulppaegi), 원추리 어린잎(Young leaves of Wonchuri), 엇갈이배추(쌈배추, Ssam cabbage), 독활(Dokhwal shoot), 두릅(Dureup young shoot), 음나무순(Eumnamu young shoot), 미나리(Minari), 쪄(Chik), 더덕

(Deodeok), 도라지(Doraji), 참마(Chamma), 올방개(Olbanggae)

지난해 인삼(수삼)에 대해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의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채택된데 이어, 금년에는 인삼농축액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도록 하였다. 참고로, 이번 인삼 기준 설정 관련 자료는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제출되어 지난 4월 24일자로 인삼 잔류농약 기준(0.5ppm)이 최종 고시됨에 따라 미국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 장벽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HACCP기준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MOU체결



축산물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원(원장 조
규담, 이하 기준원)은
5월 9일(목) 서울 로
얄호텔에서 한국소비

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와 '축산물HACCP 전용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HACCP 전용망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와 모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식탁을 제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기준원은 HACCP 전용망 구축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공동 조사·연구

» 정부기관소식

사업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HACCP 전용망 구축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의 운영 및 소비자단체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축산물HACCP 홍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협의하였다. 아울러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공동선언을 통해 전 단계 HACCP Chain 구축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행복 식탁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HACCP 전용망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은 소비자 행복식탁 실현을 위한 「HACCP 전용망 구축」의 필요성과 전 단계 HACCP Chain 구축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사업 추진의지를 전파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규담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모든 국민의 식탁에 안전한 HACCP 지정 축산물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2017년 HACCP 전용 유통망 50% 달성」 및 「HACCP 전용망 구축의 원년」이라는 2013년도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김연화 회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축산물HACCP기준원에 감사를 표한다”며, “금일 업무협약 체결과 공동선언을 통해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대한항공-인천공항 손잡고 농식품 수출에 날개달다

유럽 등 장거리 수출 확대 위해 저렴한 항공운임 제공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5월 22일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농식품부 김상경 수출진흥팀장과 국토교통부 이상일 항공산업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항공(대표이사 지창훈), 인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영근)와 우리 농수산식품의 장거리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했다.

항공운송을 이용한 농수산식품 수출량은 2012년 1만톤으로 국가 전체 항공수출(53만톤)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그 중 딸기, 백합, 새송이버섯 등 신선농산물은 약 4천톤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근거리인 일본, 홍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과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해상운송으로 많이 대체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항공수출은 장거리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선박으로 유럽에 수출할 경우 40일이 소요되나 항공으로는 당일 운송이 가능할 정도이다.

aT는 지난해 10월 대한항공과의 MOU를 통해 러시아 모스크바로 수출되는 신선농산물에 대해 일차적으로 특별할인운임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협약 전 400Kg에 불과하던 딸기 항공수출이 현재까지 13톤까지 확대되는 등 항공수출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이 유럽지역 버섯 수출 등 다양한 품목과 지역으로 장거리 수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다.

aT 박종서 식품수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항공운송의 높은 운임과 부족한 농수산식품의 수출물류 인프라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유럽이나 미주 등에 다양한 신선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이번 3자 협약 신규 참여를 통해 수출 전 신선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냉동 냉장시설이나 신선농산물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충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50여명의 농수산물식품 수출 관계자가 참석하여 화물터미널 건학을 통해 수출품이 터미널에 도착해서 항공기에 적재되기까지 항공수출의 전 과정을 보면서 장거리 수출의 이혜도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 농협중앙회

농협공판장, ‘스마트폰 전자경매 시스템’ 도입

농협중앙회 농산물도매분사(분사장 안영철)는 농협공판장 최초의 ‘스마트 폰 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난 5월 15일 제천농협에서 최초로 본 경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전자경매 시스템’은 기존 전자경매에서 한층 더 발전된 시스템으로 전자경매 전용 응찰기가 아닌 중도매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응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찰내역, 미수금현황, 공판장 반입물량 체크, 경매시세 조회, 각종 공지사항 확인 등 거의 모든 공판장 업무를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시스템이다. 농협공판장 전용 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구동·시현되며 특히 기존 응찰기와 스마트폰을 100% 호환 가능토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장점이다.

농산물도매분사는 2012년 5월 본 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하고 사업성 검토 및 보안점검 등을 마친 후 12월 개발에 착수, 금년 3월에 개발을 완료하여 지난 5월 15일 제천농협 공판장(조합장 김학수)에서 최초로 적용하게 되었다.

농산물도매분사는 금년 내에 제천농협을 포함하여 총 8개 공판장에 스마트폰 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

할 예정이며 향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안영철 농산물도매분사장은 “농협공판장 스마트폰 전자경매 시스템의 도입은 농협 경제사업의 핵심인 공판장의 스마트하고 신속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농협공판장은 출하자·중도매인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공판장의 농산물 유통 점유비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